

발렌타인 · 화이트데이 포장, 이곳을 가보자!

남대문 · 강남고속터미널 등 포장 유행 흐름이 한눈에

일본의 상업적 전략에 의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이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초콜릿과 사랑이라는 달콤한 신발을 신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찾아든 두 이벤트가 주요 소비층인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데는 세련된 포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포장의 메카로 불리는 남대문과 새로운 중심상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강남고속터미널을 집중 소개한다.

■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1980년대부터 포장재 도매상들이 자리잡으면서 국내 포장의 핵심 유통처로 자리잡은 남대문은 종합 시장이라는 유리한 여건을 안고 더욱 확고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다른 상권에 비해 유통인구가 많고 무엇보다 문구류를 포함한 액세서리점들이 같이 위치하고 있어 일괄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성장을 거듭해온 배경이 됐다는 게 포장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지역은 전통적인 도매시장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끌어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상품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매자들은 시중 소매가보다 40~50% 저렴한 선에서 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포장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성수기를 1년에 4시기로 보고 있다. 2·3월의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시즌을 우선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들 이벤트 외에도 졸업과 입학시즌이 맞물려 있어 업계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5월에 들어서면 스승의 날·어버이날과 함께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시기로 업계로서는 또 한번의 성수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 등에 선물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예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가을로 들어서면 추석을 비롯한 연휴가 많아 매출이 호조를 보이는 시기다. 마지막으로 포장업체로서는 놓칠 수 없는 성수기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시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출이 예년 같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이에 대해 포장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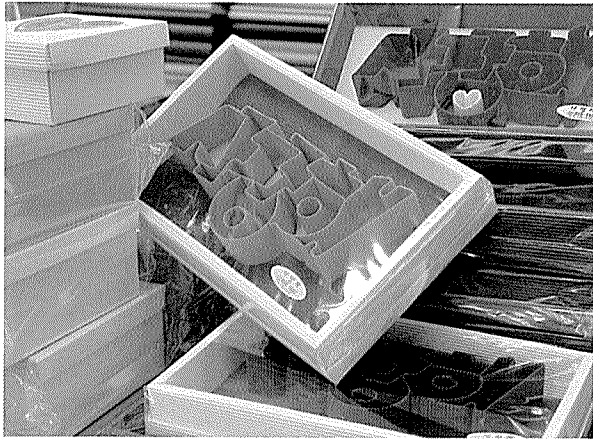
관계자는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매출이 가장 컸으나 최근에는 발렌타인시즌 매출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몇 해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품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포장재 매출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질 강화 주력 ... 연매출 15억 원선

현재 남대문에는 대략 3~4군데의 대형 포장업체가 성업중이다. 남대문을 뒤로하고 수입상가 골목으로 들어서면 옛 남대문극장 방향으로 포장재료 시장이 형성돼 있다. 문구류와 팬시류 도매상들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거리를 중심으로 대형 포장재업체들이 길 하나를 사이로 마주하고 있다. 대도지물, 남문상사, 선일포장 등이 대표적이며 인근 상가 건물 안에도 2~3곳의 중소형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대도지물(대표 : 김평권 752-8202,5982)은 1층과 2층에 약 15평의 매장 규모로 영업하고 있다. 88년 8월에 오픈한 이 업체는 정규 직원 6명과 파트타





임 직원을 포함, 평균 10여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하남시에 약 150평의 창고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일부 제품을 완제품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포장에 관련된 전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점포 규모로는 남대문 상권에서 가장 크다.

선일포장(대표 : 오학근 753-5370)은 장판도매업체로 영업을 해오다 88년 포장업체로 품목을 확대해 재오픈한 경우다. 현재는 포장지를 비롯해 종이박스, 바구니, 비닐, 색한지, 축하폭죽, 칼라시트, 리본 등 포장에 관련된 전품목을 도·소매로 취급하고 있다. 약 12평의 매장에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2평 크기의 창고를 두고 있다.

90년 7월 오픈한 남문상사(대표 : 조경연 753-2967)는 약 8평의 매장규모에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업체는 초창기 벽지와 포장지를 취급해 왔으며 지금은 포장재료에 관한 전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매장 뒷편으로 28평의 창고를 두고 있어 이 업체는 각 시즌에 맞는 유행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적시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 위치한 포장재 생산업체들은 1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거진상역을 비롯, 영플라워, 코코, 제일포장 등이 현재 수도권에서 유통되는 포장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남대문 포장 도매상들은 앞으로 점차 영업 전략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각종 매체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수준과 안목이 상당히 높아져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예를 들어 종이상자, 즉 지함의 경우만 하더라도 평범한 종이재료는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고 있어 엠보싱 처리된 것이나 골판지 정도의 재질을 사용해야 상품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권 부상을 노린다…고속터미널상가 등도 주목해야

지난해부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꽃상가 3층에 포장업체들이 문을 열고 포장재 유통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 꽃상가의 명성을 토대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권은 몇 년 안으로 종합포장상가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꽃바구니 등 장식물을 판매하는 상가와 연계하는 한편 액세서리·상가 입주를 유도해 품목을 보강함으로써 포장종합상가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상가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D&D wrapping line과 현대데코 등 3~4곳이 있다. 4개 매장을 포함해 약 30평 규모로 작년 4월에 오픈한 D&D(대표 : 김평두 3478-0846)는 종업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포장지, 리본, 한지 등 국산품과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외에도 각종 꽃박스와 포장박스를 주문생산하고 있다. 현대데코(대표 최철호 535-1122)는 98년 3월에 오픈했다. 현재 꽃바구니 등 꽃장식물에 관계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체 140평 규모로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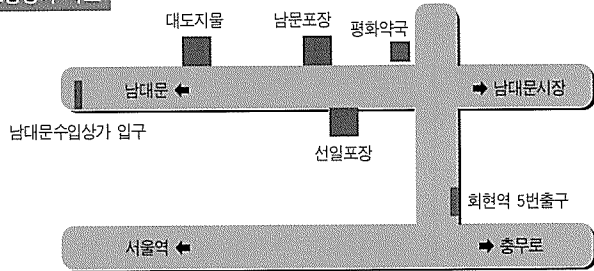
이외에도 수도권에는 중소 규모의 포장 재료상들이 몇 곳에 걸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동 꽃시장의 포장업체를 비롯해 동대문의 창신동시장, 영등포시장, 청량리시장과 최근 활발하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천호동의 완구골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시장들은 인지도면에서 남대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역상권을 형성하면서 꾸준하게 영업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행 흐름 예측, 한두 달 앞서 발로 뛰어라

포장제품의 올해 유행 상품은 단순한 종이상자보다 리본과 꽃으로 다시 세팅함으로써 전문가적 시각과 손길이 가미된 상품들이 단연 인기를 끌고 있다. 지함의 재질도 벨벳을 비롯해 메탈, 골판지, 우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신상품으로 출시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한 인조털 박스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이런 재질들을 이용해 만든 하트, 별, 육각, 사각, 원통 등 다양한 모양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구니에 리본이나 인조털로 볼륨감을 준 제품이 점차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한편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장재 시장은 단기

남대문 포장상가 약도



▲ 선일포장(☎ 753-5370)외장. 장판도매업체에서 품목을 확대해 현재는 종합포장업체로 영업중이다.



◀ 남문상사(☎ 753-2967)외장. 매장 밖으로까지 제품을 진열해 놓는 등 활발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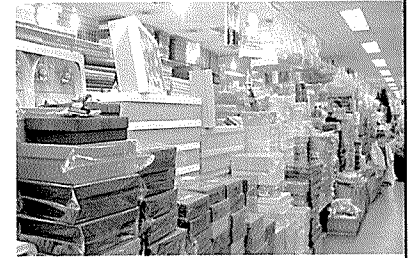
◀ 남문상사 내부. 벽면 모두가 제품으로 꽉 차 있다. 사진은 데코레이션으로 쓰이는 리본의 진열 모습.



▲ 선일포장 내부. 12평의 매장 안에 각종 포장재들이 가지런히 전시돼 있다.

▼ D&D(☎ 3478-0846)전경. 매장 4곳이 고속터미널 3층 상가에 입주해 있다.

▼ D&D 매장 내부. 상가 통로 한켠을 모두 포장재로 진열, 소비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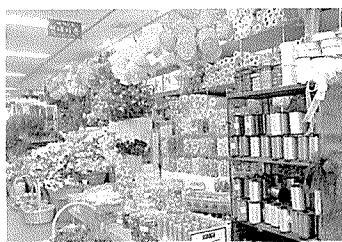
◀ 대도지물(☎ 752-8202)외장. 1층과 2층에 15평 규모로 1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현대데코(☎ 535-1122)전경. 나무바구니와 철제바구니 등이 매장에 진열돼 있다.

▼ 현대데코 매장 모습. 꽃바구니와 리본 등 꽃 데코레이션 전 품목이 구비돼 있다.



◀ 대도지물창고 내부.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남대문 상가 중 규모로는 최대다.



간에 대량의 물품이 소화되는 독특한 유통질서를 형성하고 있어 미리 물동량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른 업종과는 달리 유행의 특별한 바로미터가 없다는 것이다. 제품이 출시된 후 소비자들의 반응으로만 제품의 유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판매상이나 구매자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고가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약 1만 원대 안팎의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어 작년에 비해 20~30% 정도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하트모양의 플라스틱 상자와 금속성의 메탈제품이 주춤한 반면 올해는 다양한 재질의 상품이 골고루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수입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국산을 비롯한 수

입품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언급된 도매상을 이용하면 구매자들은 시중 소비자보다 약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시즌보다 앞서 유행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는 베이커리 업주들로서는 시즌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장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해 유행의 맥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경향을 주시할 필요와 함께 유행이 우리보다 평균 3~4년 앞서는 일본의 경향이 어떤 식으로 국내에 상륙할 지도 미리 점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결국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을 수 있듯, 한두 달 전에 미리 시장의 유행경향을 알아보는 것이 포장재 구매자들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

선물포장 인터넷 사이트

■ 국내사이트

- 훔칠 수 있는 포장나라 www.net-in.co.kr/won2004/html/main.html

상자, 넥타이, 리본, 선물가방, 액세서리, 옷, 와인병, 상품권, CD 등의 선물 포장법을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다. 과자 북주머니, 술주머니, 과자 담근 양철북, 카드 매단 봉투, 경단 미니 박스 등 다양한 선물 포장법을 소개하고 있다.

- 효정의 선물이야기 my.dreamwiz.com/74khj/

크리스마스, 졸업식과 입학식, 발렌타인데이, 결혼, 아기탄생 등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선물 포장법을 소개한다. 찻잔이나 와인병, 인형, 넥타이 등 다양한 포장법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안내된다.

- 황인자 WRAPPING 연구소 www.joywrap.co.kr

포장 코디네이터의 테마별 포장제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계절별 기념일별 포장과 머리핀 등 소품을 이용한 포장법이 눈길을 끈다. 스퀘어포장, 주름포장 등 기본 포장방법에 대한 DIY 강좌 코너가 있다.

- Art Wrapping members.tripod.lycos.co.kr/artwrapping

스퀘어포장, 삼각포장, 책포장, 캐러멜포장, 주름포장, 상자만들기, 바구니포장 등 각종 선물포장 작품과 제작방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 선물포장 이야기 www.okgift.pe.kr

상자포장, 꽃포장, 병포장, 원통형포장 등 기본적인 포장방법과 함께 프랜치보, 스타보 등 포장에 필요한 리본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 해외사이트 (일본)

- 레츠래핑 <http://www.taka.co.jp/wrapping.htm>

기본적인 선물포장방법에서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물포장법을 소개한 일본어 사이트. 캐러멜형, 캔디형, 대부채형 포장방법을 비롯해 약간의 응용으로 세련된 멋을 낼 수 있는 파티용 병 포장방법 등이 있다.

- 포장정보지 '클립' www.shimajima.co.jp/wrapping/wrap00.htm

포장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월간정보지 '클립' 과 기본적인 포장방법 안내를 한다. 같은 소재의 리본을 다르게 매는 법 등 생활을 테마로 한 다양한 포장방법을 얻을 수 있다.